

【논 문】

만주국 건국 이데올로기의 균열과 변형 - 민족협화에서 오족협화로, 왕도주의에서 왕도낙토로 -

안 지 나*

┃ 차 례 ┃

1. 머리말
2. 민족협화의 '창출'과 변질
3. 왕도주의의 '재해석'과 한계
4. 건국 이데올로기의 배제
5. 맺음말

국문초록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인 왕도주의와 민족협화는 역사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재만일본인에 의해 창출되었고 만주사변을 계기로 건국공작 과정에서 타민족의 협력과 복종을 획득하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건국 이데올로기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만주국의 정치제도가 정비되고 일본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하는 등 정치적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그와 같은 정치적 역할은 점차 중요성을 잃었다. 그러나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만주국을 수식하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동양적 이상국가'라는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왕도주의와 민족협화는 사실상 황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재해석되었다. 그리고 만주 건국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혼란은, 현실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모순, 분열로 나타났던 것이다.

주제어 : 건국 이데올로기, 민족협화, 왕도주의, 왕도낙토, 오족협화, 만주청년연맹, 다치바나 시라키

1. 머리말

1932년, 중국 동북부에 ‘괴뢰국가’ 만주국이 건국되었다. 제국일본은 건국 이데올로기인 민족협화와 왕도주의를 내세워 사실상의 식민지인 만주국의 건국을 동양적 유토피아의 건설로 미화하였다. 그러나 화려한 선전과는 달리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는 사상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점차 왕도낙토와 오족협화와 같은 단순한 슬로건으로 대체되어갔다. 만주국 시기부터 민족협화와 오족협화, 왕도주의와 왕도낙토가 혼용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에서 민족협화와 오족협화, 왕도주의와 왕도낙토가 거의 같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1945년 8월 제국일본의 패전과 만주국 붕괴 이후, 만주국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민족협화/오족협화’와 ‘왕도주의/왕도낙토’는 괴뢰국가를 창출하기 위한 기만적인 이데올로기로 여겨졌다. 이러한 관점은 제국일본이 만주국의 건국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된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제국일본과 만주국 사이에 존재한 차이와 모순을 은폐하며, 자칫 만주국이 건국되고 붕괴하기까지 일관된 이데올로기가 존재했고, 관철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민족협화와 왕도주의는 주로 만주사변 전후, 건국과정의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의해 창출되었으며, 건국 후에도 만주국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의 변화 및 제국일본과의 관계에 따라 많은 균열과 모순을 품은 채 변용되어갔다. 예를 들어 민족협화가 일본민족의 주도 하에 만주에 거주하는 여러 소수 민족의 협력을 의미했다면, 오족협화는 일본민족을 중심으로 한 주요 다섯 민족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한편 왕도주의가 전통적 농업사회에 기반을 둔 고대 중국의 정치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왕도낙토는 왕도가 실현된 유토피아를 의미했다.

그럼에도 만주국 시기부터 ‘민족협화/오족협화’와 ‘왕도주의/왕도낙토’가 혼용된 가장 큰 원인은 이들 이데올로기가 명확한 정의 없이, 사상으로서의

내적인 발전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민족협화와 왕도주의의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특정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

전후 일본에 건국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만주국을 정당화하는 담론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이들 이데올로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만주국이 결과적으로 실패하기는 했지만 민족협화와 왕도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 했던 숭고한 시도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비판은 주로 건국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만주국의 건국과정을 검토한 후루야 데츠오(古屋哲男)는 민족협화에 대하여 “특별한 시책이 시행되지도 않았고, 왕도가 실현되면 자연히 달성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논의할만한 아무런 전개도 보이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²⁾ 또한 왕도주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지 “유교적 덕목”을 나열한 것뿐이며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이나 요구가 생겨나지도 않았다”고 비판적으로 파악하였다.³⁾ 이처럼 만주국 건국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의 이데올로기이며, 그 내실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히라노 겐이치로(平野健一郎)는 “민족협화 사상 형성과정의 다이내믹스”⁴⁾를 중심으로 만주청년연맹 결성부터 만주국 건국 이후의 공화당, 협화회로 이어지는 재만일본인의 역할과 민족협화를 분석하였다. 그는 민족협화가 “내포하고 있는 바는 사상이라 부르기에겐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사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1)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平野健一郎, 1970. 12, 「滿洲事変前における在滿日本人の動向—滿洲國性格形成の一要因—」, 『國際政治』(43), 東京: 日本國際政治學會; 平野健一郎, 1973. 3, 「滿洲國協和會の政治的展開—複數民族國家における政治的安定と國家動員—」, 『日本政治學會年報政治學』, 東京: 岩波書店; 古屋哲男, 1993, 「『滿洲國』の創出」, 山本有造編, 『『滿洲國』の研究』, 東京: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駒込武, 1996, 『植民地帝國日本の文化統合』, 東京: 岩波書店.

2) 古屋哲男, 1993, 앞의 논문, 76쪽.

3) 古屋哲男, 1993, 위의 논문, 76쪽.

4) 平野健一郎, 1970. 12, 앞의 논문, 52쪽.

그것은 재만일본인의 ‘심정적 체계’라고 지적하였다.⁵⁾ 민족협화가 단순히 민족 평등의 사상이나 제국일본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당시 재만일본인이 처해 있던 정치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서 창출된 것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마고메 다케시(駒込武)는 왕도주의를 중심으로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가 건국을 미화하기 위한 “외적 수식(修飾)”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이나 요구”가 교차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⁶⁾ 이는 ‘동화’를 중심으로 하는 제국일본의 통치이념에 대해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가 갖는 이질성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히라노와 고마고메의 관점은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제국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현지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이라는 제약 속에서 국가통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균열을 내포한 채 창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었다. 즉,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는 소수의 지배민족에 의한 다수의 피지배민족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시키고 피지배민족의 복종과 협력을 획득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였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민족협화와 왕도주의는 다수의 피지배민족인 한민족(漢民族)을 중국 내셔널리즘의 영향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소수의 지배민족인 일본민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만주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탄생하였다. 때문에 건국 이데올로기는 처음부터 그 내용이 애매모호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출발한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만주국의 체제가 정립되고, 만주국이 제국일본의 ‘동화’ 정책에 포섭되는 과정 속에서 건국 이데올로기는 결국 단순한 정치적 구호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만주·만주국 관련 연구에서는 만주국의 이데올로기를 단순히 ‘민족협화/오족협화’와 ‘왕도주의/왕도낙토’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규정된 이데올로

5) 平野健一郎, 1970. 12, 위의 논문, 54~55쪽.

6) 駒込武, 1996, 앞의 책, 237쪽.

기였으며, 때문에 만주국을 둘러싼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음을 간과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의 시대적·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변천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창출되었고 변용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임과 동시에 민족협화와 왕도주의를 건국이념으로 내세운 다민족국가의 ‘독립국’이라는 허상이 어떠한 균열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는지 비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2. 민족협화의 ‘창출’과 변질

민족협화는 재만일본인 단체인 ‘만주청년연맹’에 의해 등장하였다. ‘만주청년연맹(이하 ‘청년연맹’)은, 그 성립(1928. 11)부터 해산(1932. 10)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국난에 처하여 만주문제의 해결을 선결하고 청년의 힘으로 갱생 일본의 건설을 꾀하”는 재만일본인 단체였다.”⁷⁾ 초대 이사장은 ‘남만주철도 주식회사(이하 ‘만철’) 이사였던 고비야마 나오토(小日山直登), 설립 첫해의 회원 수는 약3,000여 명, 지부는 만주 전역 각 도시의 21개에 이르렀다.”⁸⁾

당시 재만일본인은 동북지역을 둘러싸고 날로 침체화하는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장쉐량(張學良)의 ‘역치(易幟, 1928. 12. 29)’를 계기로 한 동북 정권의 ‘배일정책(排日政策)’은 치외법권 철폐 주장,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및 과세(1931, 다련[大連]항의 이중과세), 만철 경영에 대한 압박, 반일 교육, ‘완바오산(萬寶山) 사건(1931. 7)’이 상징하는 재만 조선인에 대한 압박 등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일정책’의 심

7) 滿洲青年聯盟史刊行委員會編, 1933, 『滿洲青年聯盟史』, 奉天: 滿洲青年連盟史刊行委員會(1968, 복각판, 東京: 原書房), 17쪽.

8) 滿洲青年聯盟史刊行委員會編, 1933, 위의 책, 1, 7쪽.

화는, 재만일본인에게 심각한 정치적·경제적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국제협조를 중시하는 시데하라(幣原) 외무상의 소위 ‘시데하라 외교’가 재개되었다. 중국 주권을 인정하는 듯이 보이는 일본 정부의 대중외교방침은, 재만일본인의 불안이나 위협감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장쉐량 정권의 배일정책이 중국 내셔널리즘의 영향을 받은 동북 민중에게서 지지를 받으며 강력하게 전개되는 동안, 재만일본인은 제국일본의 ‘만몽특수권익’과 자신들의 ‘생존권’을 연결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연맹은 1931년 7월 19일, 일본에 ‘만몽특수권익’의 위기를 호소하기 위한 연설단을 파견하였다. 연설단은 도쿄와 오사카 등 각지에서 강연회를 열었지만, 이에 대한 일본정부나 일반대중의 반응은 냉담했다.⁹⁾

일본정부와 대중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 청년연맹은, ‘적극적인 만몽정책 확립 촉진 2단계 운동’으로 만주의 주요 도시에서 ‘난국타개 시국문제 대회’라는 연설회를 개최하고(1931. 6. 13), 신만몽정책 다섯 강령(綱領)을 결의하였으며, 각종 팜플렛을 간행하였다.¹⁰⁾ ‘여러 민족의 협화’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청년연맹이 결의한 다섯 강령 중 하나인 ‘만몽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여러 민족의 협화를 기한다’라는 발표였다(1931. 6. 13). 당시 청년연맹에서 형성되고 있던 민족협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청년연맹에서 발행한 팜플렛 『만몽삼제(滿蒙三題)』(1931.7)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북의 자본주의화는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민족적 생존투쟁이 첨예화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소민족 의식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볼 때 만주에서 일본 이주민의 생존의 활로는, 당연히 만주에 거주하는 차각한, 더불어 압박과 착취에 신음하는 여러 민족과 상호 제휴하여 순리 순정에 입각하고 민족협화에 정진하며 일본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공화(共和)의 낙원을 만몽의 천지에 초래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중략) 몽골

9) 滿洲青年聯盟史刊行委員會編, 1933, 위의 책, 12~13쪽.

10) 滿洲青年聯盟史刊行委員會編, 1933, 위의 책, 459쪽.

민족은 선주자이며, 한민족(韓民族)도 일찍이 만주의 거주자이자 요즘에는 접양지대의 이주민이며 일본민족도 또한 그렇다. 이들 민족은 전주(轉住)할 가능성이 없다. 몽골족은 불모지인 북부로 쫓겨나 굶주리고 있으며, 선농(鮮農)은 귀향하여 일굴 땅이 없고, 일본이민은 조국에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으니, 만약 현재 상태 그대로 흘러간다면 떠나도 머물러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그저 싸늘한 묘지뿐이다. 다시 경애하는 동포 제군에게 고한다, 만몽에 거주하는 백만의 선주(先住) 몽골민족과 같은 수의 일본신민인 한민족(韓民族) 및 수 십 만의 일본민족은 반봉건적 동북정권의 포악한 말발굽 아래에서 생존권을 유린당해 사멸에 직면해 있음을, 이제 생사의 정점에 선 우리는 스스로를 구함과 더불어 같은 운명에 처한 약소민족을 구하기 위해 오직 전진만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 일본민족의 목전에 던져진 천명이며 특권이다. 간곡히 정의에 불타는 우리 동포의 열렬한 분투를 바라 마지 않는다.¹¹⁾

이 시기 청년연맹의 민족협화론은, 그 이상향을 ‘일본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공화(共和)의 낙원’으로 설정하여 일본민족의 주도성을 전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민족도 또한 동북 군벌의 ‘전횡’에 고통 받고 있는 한 민족으로서 다른 약소민족과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일본민족이 약소민족 의식을 확고히 하고 타민족과의 제휴를 통해 장제량 정권에 대항한다는 구상은, 약소민족의 ‘평등’한 관계에 기반을 둬으로써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였다. 이는 만주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중국내셔널리즘의 위협을 의식하면서 만주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생존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논리이기도 했다. 즉 ‘일본제국’의 ‘만몽특수권익’과 직결하는 ‘방인보호(邦人保護)’가 아니라, 동북지역의 약소민족 중 하나인 ‘일본민족’으로서의 ‘생존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청년연맹의 민족협화론이 당시 재만일본인을 둘러싼 만주의 정치적 상황에서 현실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31년 당시, 대부분의 재만일본인은 만철부속지나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독자적으로 다른 ‘약소민족’과 정치적으로 제

11) 저자 미상, 1931. 7, 『滿蒙三題』(滿洲青年聯盟史刊行委員會編, 1933, 위의 책 수록), 464~466쪽.

휴할만한 구체적인 구상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 두 달 후, 만주사변의 발발로 재만일본인이 우려하던 중국내서 널리 퍼진 위협은 관동군의 무력에 의해 해결되었다. 히라노는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청년연맹의 민족협화론을 ‘변질’시켰다고 지적하였다.¹²⁾ 즉, 약소민족의 상호 연대를 강조하던 민족협화론이 만주사변 이후에는 ‘일본민족의 지도에 의한 각 민족의 협화’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정부의 ‘전쟁불확대’ 방침에 따라 관동군에게 협력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만철, 영사관, 관동청과 달리, 민간단체였던 청년연맹은 관동군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협력을 제공하며 만주국 건국공작에 참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민족협화는 만주사변을 정당화하고, 소수 지배민족이 된 일본민족의 주도 하에 여타 피지배민족의 협력을 획득하는 데 유효한 건국 이데올로기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민족의 연대를 중시하는 민족협화만으로는 다수의 피지배민족인 한민족(漢民族)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농촌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민족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민족협화를 보완하는 이데올로기로서 부상한 것이 왕도주의였다.

3. 왕도주의의 ‘재해석’과 한계

본래 왕도라는 말은 『맹자』에 단 한번 등장한다.¹³⁾ 「양혜왕상(梁惠王上)」에서 ‘양생상사무감(養生喪死無憾), 왕도지시야(王道之始也)’, 즉 ‘살아있는 이를 봉양하고 죽은 이를 장사 지내는 데 후회가 없도록 하는 것이 왕도의 시작이다’라는 구절이다. 맹자의 왕도주의를 사상적 측면에서 검토한 요시나가

12) 平野健一郎, 1970. 12, 앞의 논문, 69쪽.

13) 吉永愷二郎, 1998. 3, 「墨家思想と孟子の王道論—孟子王道論の形成と構造」, 『秋田大學教育學部研究紀要 人文科學・社會科學』(53), 秋田: 秋田大學教育文化學部, 15쪽.

신지로(吉永愼二郎)는, 맹자의 왕도론이 전통적 농업사회에 입각한 도덕론이며, 그 기반에는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경영될 수 있다는 논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¹⁴⁾ 또한 쉰원의 ‘대아시아강연’(1924. 11. 24)에서는 맹자의 왕도론에 등장하는 ‘왕도’와 ‘패도’가 아시아와 서양 제국주의에 대한 은유로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만주국 건국공작에서 건국 이데올로기의 하나로 왕도주의를 제시한 것은, 오랫동안 중국 농촌사회와 민중을 연구한 일본인 저널리스트 다치바나 시라키(橘樸, 1881~1945)였다.

다치바나는 1906년부터 만주 및 중국 농촌 지역을 연구하며 언론과 학술 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일본인 저널리스트였다. 그는 초기에 만주 사변에 비판적이었으나, 관동군의 설득으로 ‘방향전환’하여 ‘건국공작’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향전환’의 배경에는 군벌문제가 있었다. 다치바나는 중국이 서구 열강이나 일본의 제국주의적 진출보다도 내부의 군벌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주사변에서 관동군의 무력을 통해 군벌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다. 그는 관동군 수뇌부에게 자신이 1920년대부터 연구해온 왕도주의를 건국 이데올로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어쨌든 일본 본국의 여러 세력의 착종(錯綜)조차 안중에도 없이, 군만으로 돌진했을 정도니까, 중국인에 대한 건 이차적인 것이었죠. 이건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치워 버리고나니, 뒤처리로 민족문제가 닥쳐왔죠. 그러면 민족문제는 어떻게 할까. 거기서 사전에 우리들이 이야기한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건데, 뭐 일단 왕도로 가자는 게 되었죠. 그러자 솔직한 성품인 이시하라 중령(中佐)이 왕도란 대체 뭐냐, 눈속임이나 뻥한 허세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눈속임이 아니다. 왕도란 것은, 이런 이런 것으로 중국인은 금방 납득하는 거다. 편리해서 좋다, 편리해서 좋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상당한 근거가 있으니까 왕도로 가자, 그렇게 된 겁니다. 왕도도 좋지만 민족의 향배(向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깐, 왕도라는 것을 민족문제 해결에 적용하면 결국 민족협화가 되

14) 吉永愼二郎, 1998. 3, 위의 논문, 19쪽.

는 거요.”¹⁵⁾

이미 검토했듯이, 민족협화 개념은 본래 만주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입장에서 “일본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공화의 낙원을 만몽 천지로 초래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다치바나가 파악한 민족문제는 명확히 ‘중국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치바나는 주로 만주 인구의 대다수를 점하는 중국인을 설득하기 위한 사상적 도구로서 왕도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몽골족, 조선민족, 만주족의 정치적·경제적 입장이 만주국 건국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즉 몽골족은 장쉐량 정권에 의한 “몽골 침략(侵略), 목초지 파괴”에 대한 원한, 만주족에게는 “민족적, 지주적 입장에서 비롯된 정치적, 경제적 불안”, 군벌의 배일정책으로 압박받는 조선민족에는 “거주·경작의 권리”를 “보증”함으로써 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¹⁶⁾ 그러나 ‘중국인’ 문제는 “골치 아픈”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만주국 인구의 대다수이며 그 통치의 주요 대상인 ‘중국인’ 민중에게는 복종과 협력의 대가로 제시할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관동군이나 그 구성원의 대다수가 도시 거주자인 청년연맹이 중국인 농민을 납득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다치바나는 오랫동안 중국 농촌사회를 관찰하고 연구해온 경험과 지식에 기반을 두고 광대한 농촌사회를 포섭하기 위한 유효한 이데올로기로써 왕도를 제시한 것이다.

중국을 “중세적 농업국”¹⁷⁾이라고 파악한 다치바나는, 만주 농촌부에는 전통적 중국농촌사회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민족 사상 및 민족성의 순진한 모습에서 우리들은 맹자의 정치론이 가장 그들에게 적합하

15) 橘樸, 1941. 10, 『大陸政策十年の檢討』(座談會), 橘樸著作集刊行委員會, 1966, 『橘樸著作集第三卷 アジア・日本の道』, 東京: 勁草書房, 550쪽. 『橘樸著作集』에서는 본래 원문에서 지나(支那), 지나인(支那人) 등으로 표기되었던 관련용어가 모두 중국, 중국인으로 수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저작집의 표기를 따른다.

16) 橘樸, 1941. 10. 4, 위의 글, 549~550쪽.

17) 橘樸, 1927, 『支那研究論叢第一輯』, 大連: 亞東印書協會, 14쪽.

다”¹⁸⁾고 주장하였다. 중국 및 만주 농촌부의 전통적 농촌사회에 중세적 구조가 잔존해 있기 때문에, 전통적 농촌사회를 배경으로 한 맹자의 정치론인 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지주 계층을 포섭하는 데 유효한 논리이기도 했다. 다치바나는 장쉐량이 도시를 중심으로 한 기업화, 공업화를 지향하고 자본주의 발달을 꾀하는 동안, 급격히 추진되는 자본주의화에서 소외된 ‘봉천문치파(奉天文治派)’와 같은 지주층을 통해 지역 농촌사회를 포섭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치바나의 왕도주의는 기존 자치단체의 흡수, 일본인 고문의 감독과 현지협력자를 활용한 ‘독립국’ 기초의 구축에 유효한 것이었다.

그러나 왕도주의 도입에 대한 다치바나의 의도가 오직 정치적 명분 만들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치바나의 구상은 관동군에게 제출한 「만주신국가건국대강사안(滿洲新國家建國大綱私案)」(12. 10)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대강」에서 엿볼 수 있는 그의 건국방침은 (1) 보경안민(保境安民), (2) ‘공민’으로 조직된 민족연합국가로서 각 민족의 평등한 권리, 개인적 데모크라시 요구, 국민의회 구성, (3) 분권적 자치국가, (4) 국민의 자치에 대한 완전보장이라는 4개 항목으로 집약되어 있었다.¹⁹⁾

특히 (3) 분권적 자치국가로서의 성격에서는 “만주사회의 주요성분인 한·만·몽·선 민족은 대개 농목(農牧)을 생업으로 하므로, 신국가가 농업 국가여야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농업 국가는 이론상 공업상업국 즉 소위 자본주의 국가가 되는 자연적 경향이 있으나, 자본주의의 폐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연적 경향을 저지하고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농업 국가로 존속시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만주는 그 다수 국민의 복지 및 일본과의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영구적 농업 국가여야 하는 운명에 있다. 그리고 농업사회에 대한 합리적 통제 기구가 분권적 자치적

18) 橋樑, 1924. 1, 「中國民族の政治思想」, 『滿蒙』第5年第42冊, 大連: 滿蒙社, 橋樑著作集刊行委員會, 1966, 『橋樑著作集第一卷 中國研究』, 東京: 勁草書房, 40쪽.

19) 橋樑, 1931. 12. 10, 「滿洲國家建國大綱私案」, 『滿洲評論』第2卷1號, 大連: 滿洲評論社, 橋樑著作集刊行委員會, 1966, 『橋樑著作集第二卷 大陸政策批判』, 東京: 勁草書房, 67쪽.

국가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²⁰⁾라고 하였다. 4번째 항목인 국민 자치(각 민족사회의 전통적 자치, 정촌(町村)·현(縣)·성(省)·국가 등의 신 자치, 각종 공동조합)의 완전한 보장으로 미루어 볼 때, 다치바나의 구상이 분권자치의 농업 국가 건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치바나는 분권적 농업 국가가 된 만주국에서 ‘농민자치’를 실시하여 실제로 왕도를 실현할 것을 구상했던 것이다. 그에게 분권적 자치국가의 “자치는 인민이 스스로 구성된 단체의 힘으로 자신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²¹⁾이었으며, 이 자치단체는 단순히 국가의 하위기구가 아니라 구성원인 농민이 주도하는 것이었다. 만주 농촌지역이 대부분 한민족(漢民族)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사실상 민족자치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왕도주의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그(ideologue)로 손꼽히는 다치바나는 만주 농촌사회의 자치 육성과 분권적 농업 국가의 구축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다치바나의 왕도주의와 그 내용으로서의 ‘농민자치’는 대중적 기반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다. 그는 관동군에게 왕도가 고대 중국의 사상이기 때문에 중국인을 쉽게 납득시킬 수 있는 편리한 사상적 도구라고 소개하였지만, 다치바나가 실제로 구상한 것은 자신을 매개로 재해석된 왕도였다. 중국인 농민의 자치를 강조하는 다치바나의 왕도주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명하는 지지자는 재만일본인 중에서도 결코 다수가 아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치지도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가사키 요시아키(笠木良明)는 “일본은 태양의 나라이며, 여타 아시아 여러 나라는 그 빛을 사모하고, 그 빛을 받아 빛나는 달의 나라”이며 “왕도라는 것도 앞으로는 똑같이, 황도를 사모하고 황도에 비취지는 왕도여야 한다”²²⁾고 주장하였다. 그는 왕도

20) 橋樑, 1931. 12. 10, 위의 글, 66쪽.

21) 橋樑, 1931. 11, 「王道の實踐としての自治」, 1931. 12, 『滿洲評論』第1卷15號, 大連: 滿洲評論社, 橋樑, 위의 책(第二卷), 86쪽.

22) 笠木良明, 1938. 11, 「忠誠なる日本青年の世界的陣容布地の急務」, 『大亞細亞』6卷11号, 東京:

를 황도의 시혜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했던 것이다. 또한 청년연맹 이사장이었던 가나이 쇼우지(金井章次)는 ‘내지’에서 만주국에 부임한 일본인 관리가 “민족의 해방보다 민족협화를, 민족협화보다는 오히려 왕도라는 말을 즐겨 썼”지만, 그것은 막연한 인정(仁政)이나 덕정(德政)의 의미였다고 회상하고 있다.²³⁾ 결국 다치바나의 왕도주의는 사상적, 현실적 기반을 얻지 못한 채, 만주국 건국과 함께 자치지도부의 해산(3.15) 등을 통해 통치기구에서 배제되어갔다.

4. 건국 이데올로기의 배제

만주국 건국 이후, 관동군이나 일본인 관료, 또한 정샤오슈(鄭孝胥)를 중심으로 하는 푸이(溥儀)의 측근에게 중요한 정치 과제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아니라 중앙집권적 질서 확립이었다. 만주국 건국선언에서는 왕도주의를 실행하여 지방자치를 장려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교육의 기본은 예교, 즉 유교에 둔다고 명시되었다. 또한 고마고메가 지적했듯이, 협화회의 강령 기초에서 협화회의 사명은 자치사회의 건설에 둔다는 강령안은 푸이와 정샤오슈의 반대로 인해 ‘자치’라는 말 자체가 삭제되었다.²⁴⁾ 건국직후 이미 자치주의가 배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유교는 중앙집권제 확립에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었다. 정샤오슈와 같은 제정파(帝政派)에게는 청조의 국가이념이었던 유교를 만주국에서 되살림으로써 청조의 실질적인 ‘복벽(復辟)’을 꾀한다는 의도가 있었다. 만주국 정부는 건국원년부터 공자묘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교진흥운동을 계획하였고, 같은 해 가을 공자의 제사에서는 총리 정샤오슈가 주재하여 제사를 올렸다.

大亞細亞建設社, 笠木良明, 1940, 『青年大陣容を布地せよ』, 東京: 大亞細亞建設社, 2쪽.

23) 金井章次・山口重次, 1986, 『滿洲建國戰史 滿洲青年聯盟かく戦へり』, 堺: 大湊書房, 27쪽.

24) 駒込武, 1996, 앞의 책, 272쪽.

그 이듬해에는 집정 푸이가 제례를 올렸다.²⁵⁾ 시마카와 마사시(島川雅史)는 이 시점에서 중국의 문묘(文廟) 국가제례의 전통이 부활했다고 보고 “종교적으로는 청조의 복벽이 실현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⁶⁾

물론, 관동군이 청조의 복벽을 원할 리는 없었다. 실제로 만주국의 종교는 점차 국가신도로, 사상은 황도로 통합되어갔다. 그 전 단계로 만주국은 유교국가로서 중앙집권화를 꾀했던 것이다. 한편, 다치바나는 세습군주제의 실시와 자치제의 부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다치바나의 강한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1934년 3월에는 집정 푸이가 황제로 즉위하고 연호는 ‘대동(大同)’에서 ‘강덕(康德)’으로, 만주국은 만주제국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같은 해 실행된 협화회와 만철의 개조(改組)는 금융자본과 관료정치의 만주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것이었다. 다치바나는 특히 협화회 개조에 대하여 “협화회도 오늘날에는 만주국 정부의 선전기관으로 전략해 세간으로부터는 선전꾼(チンドン屋)이라는 천칭(貶稱)으로 불리며, 따라서 그것은 일제(日系) 관료의 손안에 떨어지게 되었다.”²⁷⁾라고 말하여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그가 왕도주의를 통해 지향한 민주주의와 자치주의의 확립, 자본주의와 관료정치 배제는 실패로 끝났다. 1935년 1월호 『만주평론(滿洲評論)』의 편집후기에서 그는 “일본 자본의 힘이 왕도낙토를 칭하고, ‘왕도정치의 실현’은 독점자본의 수중에 돌아가고, 이렇게 왕도주의는 패배를 맞았다”고 쓰고 있다.²⁸⁾ 다치바나 본인에 의해 왕도주의의 패배가 인정된 것이다. 이처럼 만주국의 건국이념으로 부상한 왕도주의는 자치주의를 상실하고 유교 내에 수렴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만주국이 유교국가로 존재하는 것조차 일본의 지배원리에 있어서는 ‘일탈’이었다.

25) 島川雅史, 1984. 3, 「現人神と八紘一宇の思想—滿洲國建國神廟」, 『史苑』43(2), 東京: 立教大學史學會, 63~64쪽.

26) 島川雅史, 1984. 3, 위의 논문, 64쪽.

27) 橘樸, 1934. 9, 「低調となつた建國工作—滿洲事變三周年に寄せて」, 『滿洲評論』第7卷11號, 大連: 滿洲評論社, 橘樸, 앞의 책(第二卷), 351쪽.

28) 橘樸, 1935. 1, 「編輯後記」, 『滿洲評論』第8卷1號, 大連: 滿洲評論社, 64쪽.

1935년, 푸이는 일본을 방문한 뒤, 만주국 황제는 “일본 천황폐하와 정신 일체”임을 선언하는 『회란훈민칙서(回鑾訓民勅書)』를 반포하였다. ‘일만일덕일심(日滿一德一心)’의 관계는 1940년, 푸이의 두 번째 방일과 『국본존정칙서(國本尊定勅書)』의 반포로 더욱 밀접해졌다. 이세신궁(伊勢神宮)에서 분사(分社)한 ‘건국신묘(建國神廟)’(9. 15)와 ‘건국충령묘(建國忠靈廟)’(9. 18)가 창건되었다. 만주국에 국가신도가 도입된 것이다.

국가신도의 만주국 도입에 대해, 시마카와는 본래 세계적 보편성이나 이민족 지배 개념이 희박한 신도가 이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동군 내 주류에 의해 서둘러 전개되었다고 지적하였다.²⁹⁾ 더욱이 일본과 같은 민속적·민중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만주국에 국가신도가 도입되면서, 다수의 이민족으로 구성된 만주국은 황국 일본과 “수직적인 지배관계”에 놓였다.³⁰⁾ 그 지배의 근거는 천황의 신격이며, 일본인이 이민족을 ‘지도’하는 만주국 현실에서 국가신도는 황민화와 민족차별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³¹⁾

여기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왕도와 민족협화라는 용어만은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로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즉 대외적으로 만주국 건국이 왕도주의와 민족협화를 실현하는 동양적 유토피아의 실현인 이상, 왕도주의와 민족협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당연히 왕도주의와 민족협화는 일본의 지배이데올로기인 ‘도의세계(道義世界) 건설’, ‘일만일덕일심’, ‘팔굉일우(八紘一宇)’와도 ‘이질’적이어서는 안 되었다. 그 해결책은 건국 이데올로기를 일본정신의 일부로서 재해석하는 것이었다.

1938년 11월, 나가가와 요노스케(中川與之助)는 「만주건국정신과 협화회의 사명(滿洲建國精神と協和會の使命)」에서 만주국의 건국정신은 “왕도주의라고 하지만 그것은 지나(支那)의 옛 왕도 그 자체가 아니며, 그 내용은 일본정신을

29) 島川雅史, 1984. 3, 앞의 논문, 75쪽.

30) 島川雅史, 1984. 3, 위의 논문, 77쪽.

31) 島川雅史, 1984. 3, 위의 논문, 77쪽.

섭취하여 새롭게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일본정신과 다른 것이 아니라 실로 일덕일심·일심일체의 관계”라고 풀이하였다.³²⁾ 만주국의 왕도주의는 고대 중국의 정치사상이 아니라 일본정신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일만일덕일심’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만주국 건국정신은 일만의 일체융합을 이상”³³⁾으로 하는 것이었다. 나카가와는 만주국의 정치형태의 원칙이 “실천주의”이며 “지나적 전통을 타파하는 혁신”³⁴⁾이라고 미화하였다. 만주국의 ‘건국정신’은 “서구적 문화에 사로잡히지 않고 동방문화를 고양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 한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며, “아시아 민족 각성의 새벽종”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논리 전개를 통해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를 일본주의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최소한의 이론적 정합성조차 잃어버린 체제국일본의 만주 지배를 찬양하고 재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40년, 도쿠토미 쇼우케이(德富正敬[蘇峰])가 엮은 『만주국독본(滿洲建國讀本)』에서는 만주국이 “그 건국 때부터 왕도정치를 행할 것을 선언했다. 이는 팔굉일우를 대이상으로 하는 일본 황도를 근본으로 하는 것이며, 일만은 한 몸과 같아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³⁵⁾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처음부터 만주국 건국과 황도의 ‘팔굉일우’가 일체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왕도정치를 행하는 것은 만주건국의 정신”이며, 왕도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의세계의 건설”이었다.³⁶⁾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만주국의 정치조직은 “도의세계의 건설을 궁극적인 이상으로 삼는 민족협화의 실제정치 즉 협화정치”였다.³⁷⁾ 만주국의 정치형태는 법이나 정치조직에 근거를 두지 않는 ‘실체정치’에 의한 ‘덕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일만일덕일

32) 中川與之助, 1938. 11, 「滿洲建國精神と協和會の使命」 『經濟論叢』 第47卷第5号, 京都: 京都帝國大學經濟學會, 122쪽.

33) 中川與之助, 1938. 11, 위의 논문, 122쪽.

34) 中川與之助, 1938. 11, 위의 논문, 122쪽.

35) 德富正敬, 1940, 『滿洲建國讀本』, 東京: 日本電報通信社, 40쪽.

36) 德富正敬, 1940, 위의 책, 40쪽.

37) 德富正敬, 1940, 위의 책, 41쪽.

심'의 선린관계를 원동력으로 한다.

‘일만일덕일심’의 근거는 ‘일만일덕일심일체(日滿一德一心一體)’, 즉 “천황 폐하와 만주국 황제폐하의 정신은 한 몸”이라는 것이었다. 현인신인 천황과 만주국 황제가 ‘한 몸’인 이상, 양국은 모든 점에서 ‘한 몸’이어야 하며, 그 관계는 “일만불가분(日滿不可分)”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이 관념은 “권리의 무의 관념에 기초를 두는 것과 같은 경박한 것이” 아니며, “숭고한 도의로 녹아든 관념”이었다.³⁸⁾

이와 같은 논리에서 만주국의 ‘덕치’, ‘일만일덕일심일체’, ‘도의세계의 실현’의 정통성이란 결국 천황의 권위로 직결된다. 천황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인 이상, 그와 ‘한 몸’인 만주국 황제의 권위도 침범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기존 정치학이나 ‘국가’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만주국의 ‘특수성’, ‘일만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비판도 성립되지 않는다. 천황의 권위가 ‘신성’한 이상, 논리적 비판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논리 구조에서는 “일만불가분의 관계도, 일만일덕일심도, 민족의 협화도, 일체 국가정신이라 부를 수 있는 일절의 국시는, 이 특수성에서 발현되고 있다”³⁹⁾는 결론만이 성립된다. 이는 정치권력의 정당화만이 아니라 ‘대일본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세계의 건설로 완성되는 논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왕도주의, 민족협화와 ‘일만일덕일심일체’, ‘도의세계의 실현’, ‘팔굉일우’는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것이었다. 왕도주의는 고대 중국의 정치 사상에 유래한 것이며 민족협화는 각 이민족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일만일덕일심일체’, ‘도의세계의 실현’, ‘팔굉일우’는 이민족의 일본화, 즉 ‘동화’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국이념’의 혼재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할수록 그 균열과 모순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만주국의 건국이념으로 부상한 왕도주의는 자치주의를 잃고 왕도낙토라는 동양적 유토피아를 뜻하는 슬로건으로 대체되었다. 민족협화는

38) 德富正敬, 1940, 위의 책, 42쪽.

39) 德富正敬, 1940, 위의 책, 43~44쪽.

“귀순한 민족을 애부육(愛撫扶育)하였고 결코 이를 학우토멸(虐遇討滅)”⁴⁰⁾하지 않은 아마토민족 고유의 성질로 설명할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에 귀화한 모든 외래민족”은 그들을 “모두 천황의 보물로 포용하고 애육(愛育)”하는 황도의 “정신에 동화하여, 아마토민족에 귀일하였고, 단결하여 같은 민족의 식 속에 녹아들어” 갔으므로, “민족의 협화동화는 우리 황도정신의 현현”이었다. 민족협화가 내포하고 있던 각 민족의 상호 협력과 공존의 가능성은 일본민족의 주도에 의한 이상향 건설의 담론으로 변질되었고, 다시 일본민족의 ‘동화’와 결합됨으로써 일본화정책의 일부로 포섭되었던 것이다.

5. 맺음말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인 왕도주의와 민족협화는 역사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재만일본인에 의해 창출되었고, 건국공작 과정에서 타민족의 협력과 복종을 획득하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건국 이데올로기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만주국의 정치체도가 정비되고 일본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하는 등 정치적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그와 같은 정치적 역할은 중요성을 잃어갔다. 더욱이 『회란훈민칙서』(1935), 『국본존정칙서』(1940)의 반포와 같은 정치적 변화는 만주국의 이질성을 배제하고 제국일본의 ‘동화’원리에 포섭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만주국을 수식(修飾)하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동양적 이상국가’라는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었다. 또한 만주국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민족의 불만과 내셔널리즘을 자극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왕도주의와 민족협화는 ‘일만일덕일심일체’, ‘도의세계의 실현’, ‘팔굉일우’와 함께 사실상 황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재해석되었다. 그 과정에서 왕도주의와 민족협화의 역사

40) 徳富正敬, 1940, 위의 책, 204쪽.

성과 지역성은 의도적으로 잊혀졌고, 막연하게 동양적 유토피아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왕도낙토와 오족협화가 만주국을 선전하는 슬로건으로 인기를 얻었다.

이처럼 1930년대 초부터 194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왕도주의와 민족협화의 변용은 중국내셔널리즘의 위협 속에서 시작하여 만주사변, 만주국 건국, 제국일본에 대한 종속화라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재만일본인이나 관동군, 일본정부 등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는 내적으로는 사상적 발전이 없이, 현실에서는 대중적 지지기반도 갖추지 못한 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용되었다. 그리고 만주 건국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혼란은 현실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순과 분열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곤도 하루오(近藤春雄)는 1939년 초여름, 만주국 수도新京(新京)에서 열린 재만일본인 문학자와의 좌담회에 참가한 일부 재만일본인 문학자들이 민족협화를 “지극히 자유주의적인 평등관이라고 할까, 말하자면 넓은 세계관인 민족자결주의의 변모적 표현이라는 듯이 해석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좌익적인 인터내셔널리즘의 변형과 같은 해석을 가지고 득의양양하게 독선론을 휘두르는”⁴¹⁾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썼다. 곤도의 말을 빌리면 그들은 “자유주의적, 혹은 좌익사상의 망집에서 아직도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며, “만주건국의 이상(理想)에 있어서 사자 몸속의 벌레”와 같은 소름끼치는 존재였다.⁴²⁾ 민족협화의 애매함은 민족평등의 사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민족협회는 각 민족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족동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던 동시대의 식민지조선인으로서의 상대적으로 지배의 밀도가 낮은 것처럼 보이는 만주국이 매력적으로 보였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내선일체(內鮮一體)’와 ‘민족협화’의 사이에 놓인 재만조선인의 입장에서 만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은 제국일본의 지

41) 近藤春雄, 1943, 『大陸日本の文化構想』, 大阪: 敎文館, 61~62쪽.

42) 近藤春雄, 1943, 위의 책, 62쪽.

배로부터 이탈하려는 의지의 굴절이기도 했다는 지적⁴³⁾은 매우 흥미롭다. 건국 이데올로기는 애매하고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재만일본인, 관동군, 일본정부에 의해 이용당했지만, 동시에 보다 “자유주의적인 평등관”이나 “민족자결주의의 변모적 표현”, 혹은 제국일본의 지배로부터 이탈하려는 식민지인의 굴절을 가능하게 하는 균열을 내포하고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건국 이데올로기의 균열이 실제 정책에서 어떻게 반영되었고, 그 정책의 대상인 각 민족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원후(尹虎)는 재만조선인 지도방침과 민족협화의 관계를 논하면서,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민족 등급제도’와 ‘민족 이간(離間)제도’가 실행되었기 때문에 일본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끼리의 협화는 오히려 지양되었다고 지적하였다.⁴⁴⁾

지도민족인 일본민족의 우월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만주국의 현실에서, 민족 평등의 사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민족협화나 농촌의 자치주의를 장려하는 왕도주의는 거꾸로 현실과 이데올로기 사이의 간극을 강조할 수 있었다. 건국 이데올로기의 이러한 성격도 만주국에서 건국 이데올로기가 배제되고 일본주의로 통합되어 간 이유의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검토했듯이, 서로 이질적인 이데올로기가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만주국의 이데올로기는 그 논리적 정합성을 잃고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혼란은, 만주국이라는 공간에서 이데올로기의 모순과 균열이 은밀히 역용(逆用)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다.

투고일 : 2014년 11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2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15일

43) 김재용, 2010, 「일제말 한국인의 만주인식」 『만보산 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 20쪽 : 이혜용·張叢叢, 2012, 「만주국의 국가성격과 안수길의 북향정신 : 안수길의 재만시기 작품을 중심으로」, 중국해양대학교해외한국학중핵사업단, 『문명의 충격과 근대동아시아의 전환』, 경진, 265쪽.

44) 尹虎, 2009, 3, 「『滿洲國』における在滿洲朝鮮人指導方針と『民族協和』」 『國際日本學論叢』(6), 東京 : 法政大學大學院 國際日本學インSTITUTE, 56~57쪽.

참고문헌

1. 자료

- 笠木良明, 1938. 11, 「忠誠なる日本青年の世界的陣容布地の急務」 『大亞細亞』 6卷11号, 大亞細亞建設社, 笠木良明, 1940, 『青年大陣容を布地せよ』, 大亞細亞建設社
- 金井章次・山口重次, 1986, 『滿洲建國戰史 滿洲青年聯盟かく戦えり』, 大湊書房
- 近藤春雄, 1943, 『大陸日本の文化構想』, 敎文館
- 橋樸, 1924. 1, 「中國民族の政治思想」 『滿蒙』 第5年第42冊, 滿蒙社, 橋樸著作集刊行委員會, 1966, 『橋樸著作集第一卷 中国研究』, 勁草書房
- _____, 1927, 『支那研究論叢第一輯』, 亞東印書協會
- _____, 1931. 11, 「王道の實踐としての自治」, 1931. 12, 『滿洲評論』 第1卷15號, 滿洲評論社, 橋樸著作集刊行委員會, 1966, 『橋樸著作集第二卷 大陸政策批判』, 勁草書房
- _____, 1931. 12. 10, 「滿洲國家建國大綱私案」 『滿洲信評論』 第2卷1號, 滿洲信評論社, 橋樸著作集刊行委員會, 1966, 『橋樸著作集第二卷 大陸政策批判』, 勁草書房
- _____, 1934. 9, 「低調となつた建國工作—滿洲事變三周年に寄せて」 『滿洲評論』 第7卷11號, 滿洲評論社, 橋樸著作集刊行委員會, 1966, 『橋樸著作集第二卷 大陸政策批判』, 勁草書房
- _____, 1935. 1, 「編輯後記」 『滿洲信評論』 第8卷1號, 滿洲評論社
- _____, 1941. 10, 「大陸政策十年の檢討」(座談会), 橋樸著作集刊行委員會, 1966, 『橋樸著作集第三卷 アジア・日本の道』, 勁草書房
- 徳富正敬, 1940, 『滿洲建國讀本』, 日本電報通信社
- 中川與之助, 1938. 11, 「滿洲建國精神と協和會の使命」 『經濟論叢』 第47卷第5号, 京都帝國大學經濟學會
- 滿洲青年聯盟史刊行委員會編, 1933, 『滿洲青年聯盟史』, 滿洲青年連盟史刊行委員會(1968, 복각판, 原書房)
- 저자 미상, 1931. 7, 『滿蒙三題』, 滿洲青年聯盟史刊行委員會編, 1933, 『滿洲青年聯盟史』, 滿洲青年連盟史刊行委員會(1968, 복각판, 原書房)

2. 연구문헌

- 尹虎, 2009. 3, 「『滿洲国』における在滿洲朝鮮人指導方針と『民族協和』」 『國際日本學論叢』 (6), 法政大學大学院 國際日本學インスティテュート
- 駒込武, 1996, 『植民地帝國日本の文化統合』, 岩波書店
- 島川雅史, 1984. 3, 「現人神と八紘一宇の思想—滿洲国建國神廟」 『史苑』 43(2), 立教大學史學會

- 平野健一郎, 1970. 12, 「滿洲事変前における在滿日本人の動向—滿洲国性格形成の一要因」 『國際政治』(43), 日本國際政治学会
- _____, 1973. 3, 「滿洲国協和会の政治的展開—複數民族国家における政治的安定と国家動員」 『日本政治学会年報政治学』, 岩波書店
- 古屋哲男, 1993, 「『滿洲国』の創出」, 山本有造編, 『『滿洲国』の研究』,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 吉永慎二郎, 1998. 3, 「墨家思想と孟子の王道論—孟子王道論の形成と構造」 『秋田大學教育學部研究紀要 人文科学・社会科学』(53), 秋田大学教育文化学部
- 김재용, 2010, 「일제말 한국인의 만주인식」 『만보산 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
- 이해용·張叢叢, 2012, 「만주국의 국가성격과 안수길의 북향정신 : 안수길의 재만시기 작품을 중심으로」, 중국해양대학교해외한국학중핵사업단, 『문명의 충격과 근대동아시아의 전환』, 경진

■ Abstract ■

「滿洲国」の建国イデオロギーの亀裂と変容
－民族協和から五族協和へ、王道主義から王道樂土へ－

安志那

「滿洲国」の建国イデオロギーである王道主義と民族協和は、中国東北地域の歴史的・政治的状况に応じて在滿日本人によって創出された。また、「滿洲事変」を契機として建国工作の過程において、諸民族の協力と服従を獲得するという政治的な目的のために建国イデオロギーとして浮上してきた。しかし、滿洲国の政治制度が整備され、日本が国際連盟から脱退するなど国際政治状况が変化したために、滿洲国の独立性を強調する必要性は相対的に減少した。だが、建国イデオロギーそのものを否定することは、滿洲国を修辭する多民族で構成された東洋的理想国家というイメージを傷つける危険を孕んでいた。そのため、王道と民族協和は皇道を基盤とするものとして再解釈された。そして建国イデオロギーをめぐる混乱は、現実においてイデオロギーの矛盾と亀裂を露呈させる結果となったのである。

關鍵詞：建國イデオロギー, 民族協和, 王道主義, 王道樂土, 五族協和, 滿洲青年連盟, 橘樸